

국내 언론사 조직에 내재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연구

국민정부에서 실용정부까지 신문사와 방송사 조직에서의
밀도 및 위치 분석을 중심으로*

권장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본 연구에서는 국민정부에서 실용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 교체에 따라 신문사 조직과 방송사 조직을 이 사진과 실무진으로 구분, 조직 내, 조직 간의 특성을 밀도 분석과 분포 분석, 대응 일치 분석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언론 환경에서 형성되어 온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그 변화 경향이 정권 교체에 따라 어떠한 특성과 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시점에서 과연 연고 조직의 영향력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언론사가 내집단 중심의 폐쇄적인 특징으로부터 벗어나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정권에서, 밀도와 분포 분석을 통한 집중 경향과 대응일치분석 방법을 통해 위치 분석 등 다각도의 방법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정부에서와는 달리 변화 경향을 엿볼 수 있었지만, 실용정부에서는 참여정부 이전 정권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유사한 형태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분석되었다.

KEYWORDS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동질성, 밀도, 연고

* 이 논문은 2012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kweon@cu.ac.kr

1. 서론

최근 언론은 기술 발달과 각종 미디어의 도입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여론 수렴을 통해 권력의 형성 과정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선출된 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환경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여론 형성과 권력 감시라는 역할 수행은 사회 전반의 구조 형성과 변화를 가져오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사회적 이해관계를 부각시키고 조정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언론 현상을 들여다보면, 과연 언론이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사회적 이해관계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적지 않다. 오히려 언론이 '국가 유사기관화'로 치장될 만큼 권력화되었다는 지적도 있다(박승관·장겹섭, 2000). 엔트만(Entman, 1989) 역시 언론의 지나친 권력화가 시민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시민없는 민주주의'는 민주 정치 근간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언론의 권력화로 인해 민주주의는 실제 현실과 괴리된 채 언론 속에서만 존재하는 공허한 메아리 혹은 허상으로서만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언론사 내부 조직은 취재, 보도 행위를 통해 메시지를 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여론을 수렴하는 행위 주체다. 또한, 여론 수렴 행위는 정치 및 경제 행위에 입각한 권력 구조를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회 각 하부 조직들이 언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중심 권력은 지속적인 권력의 재창출과 지배력의 강화를 위해, 주변 권력은 중심 권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언론인 영입 등 다각도의 방법을 토대로 언론 조직과의 연결을 도모한다. 언론사 조직 역시 사회 각계의 이해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기 위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정치 및 경제 권력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협조 체제를 형성하고자 시도한다. 언론사 조직에 대한 분석은 권력과의 보다 효율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규명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 단위인 행위자 차원에서의 논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치, 경제 권력과 언론 간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서구의 논의는 주로 이사 겸직(interlocking directorate)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도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있어왔으나, 서구와는 달리 비공식적 차원에서의 연고주의 문화에 입각한 집단적, 위계적, 온정적 조직 문화를 매개로 정치 엘리트와 언론 엘리트 간의 권력 공유 가능성이 주로 논의된 바 있다(권장원, 2004, 2009; 장용호·김학수·정상윤, 1994; 장하용, 2006).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엘리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미디어일수록 해당 언론사가 미국에서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높다는 점을 분석한 드라이어(Dreier, 1983)의 연구 등에서도 나타

나고 있는데, 이들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언론사에 내재한 권력의 원천이 정치 및 경제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언론 역사를 통해 볼 때, 민주화 과정에서 군부 독재에 저항한 언론인들의 행위 또한 민주 정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사례도 있다. 국가 전반에 걸친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 권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불가피성 또한 존재한다. 문제는 권력과 언론간의 관계나 지나치게 친밀할 경우 선출된 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력 현상에 대한 감시, 견제가 어려워지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언론사로서는 권력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된다고 하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에 입각한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권력과 언론 조직 간의 관계 형성이 권력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을 언론사의 권력 구조 공유에 따른 주요한 논점(권장원, 2004)으로 설정한다. 물론, 사회적 관계 분석을 통해 조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연결고리의 외형적 특성만 가지고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관계 형성 요인인 연고를 기반으로 그 속에 내재한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언론사 조직 내부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 개념은 맑스가 강조했던 관계의 자본재적 특성에 입각해서 물리적 형태가 아닌 행위자 속에 용해되어 있는 자본 개념으로 출발하는데, 이후, 부르디외와 콜먼, 그리고 퍼트남 등에 의해 다양한 차원에서 부각되었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논의를 기반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에 내재한 관계적 특성 함의를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 개념에 기초하여 특히, 국내에서 주로 논의되어져 왔던 비공식적 차원의 관계 형성 요인인 연고를 주요 변수로 도입, 국내 언론 내부 조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논의에서 다루어져왔던 연고 중심의 비공식적 권력 공유 속성이 국민정부에서 실용정부에 이르기까지 언론사 내부 조직에서 어떻게 형성,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네트워크 논의와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논의는 크게 권력과 경제 자원 측면으로 구분 가능하다. 권력적 관점은 둘 혹은 그 이상의 행위자들 간의 비대칭적 관계에 입각한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수직적, 위계적 사회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Knoke, 1990).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의 위치적 근접성 여부가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주요한 단서로 작용하며, 대통령과의 개인적, 문화적 속성에 입각한 관계 형성이 권력 네트워크 구조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권장원, 2002, 2004). 이에 비해 경제 자원적 관점은 관계 형성이 상호간의 신뢰를 매개로 향후 거래 혹은 교환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는 점(Coase, 1960)과 제3의 생산요소로써 효율성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김용학, 1996; Bourdieu, 1983; Coleman, 1988; Lin 2002)에 기반한다(권장원, 2009).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적 네트워크는 권력과 경제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언론사 역시 권력 공유와 정보 제공을 위한 효율적 경제 자원으로써 권력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은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한편, 사회적 네트워크 논의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전제한다.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매개로 행위 당사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신뢰의 축적은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비록 그 지향점이 권력 구조의 형성이든, 아니면 개인의 자산적 가치 상승을 가져오든 사회적 관계 형성은 신뢰를 매개로 쌍방 행위자 간의 거래에 따른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신뢰는 물리적 유형과 동일한 특성을 띠고 있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자원 동원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언론과 권력과의 신뢰 관계 형성으로 인해 언론사는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권력은 행위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안전판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 행위자에 내재한 자본 유형과 사회적 자본 특성

개별 행위자는 관계 형성을 통한 신뢰 축적을 기반으로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동시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자본재적 조건을 갖추게 된다. 개별 행위자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본재적 조건과 관련하여 슉츠(Schultz, 1961)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 개념을 제시한다. 인적 자본 개념은 개별 행위자들이 행위자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부가가치를 축적하는 내적 조건을 의미하며, 기업은 고용을 통해 각 노동자들에 내재한 인적 자본을 확보한다. 결국, 각 행위자에 의해 자체적으로 축적한 지식이나 기술은 개별 행위자에 내재한 일종의 자산

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며, 상속이나 귀속, 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의 개별 노력이나 자원 교환 등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된다(Lin, 2002). 각 행위자는 인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행위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시에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게 된다(Johnson, 1960; Schultz, 1961).

한편, 개별 행위자에 축적된 인적 자본 개념과는 달리 사회적 자본 개념은 사회적 네트워크 혹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내재한 자본이며, 구성원들에게 신용을 부여하는 집합적 자산이다(Bourdieu, 1980; Lin, 2002).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서는 부르디외(Bourdieu, 1980)와 콜먼(Coleman, 1990)은 논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우선, 부르디외는 지배적 상징과 의미를 내면화한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이 특권 계급을 강화하고 재생산해낸다는 계급적 관점에서, 콜먼은 사회적 자본을 한 개인이 참여함으로써 특정 이익, 기회 등을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사회적 자원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르디외와 콜먼이 주장하는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부르디외(Bourdieu, 1980)가 제안한 사회적 자본 개념은 문화 지식 교육과 계급성이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¹⁾ 문화 지식 교육이 계급성을 재생산하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르디외의 문화 자본 개념을 통해 지식 전수가 단순한 개별 행위자 상호간의 연결 혹은 매개 차원을 넘어 지배 계급이 의도한 인식 체계로 개별 행위자를 편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동시에 지배계급의 사상이나 견해가 제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지배 계급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 지배계급 중심의 권력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 고착화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콜먼(Coleman, 1990)은 지식 전달을 매개로 상호간의 관계 형성 및 수혜를 매개로 전체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일종의 공공재로서 사회적 자본 개념을 주장한다. 사회적 자본이 사회 집단이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거래비용을 감소시켜주고,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개인으로 환원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²⁾ 부르디외와 콜먼의 논점을 종합하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

1) 부르디외는 인적 자본을 가져오는 속성 중에서 교육 행위(pedagogic action)에 집중한다. 지배 계급이 교육 행위에 자신의 문화 가치를 포함시켜, 이를 다음 세대에서의 지배적 상징과 의미로서 내면화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적 문화의 특징을 재생산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Lin, 2002). 지배계급에 의해 제도화된 교육은 지배적 문화 가치가 마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전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지배 문화가 보편적, 객관적인 지배 문화로 정당화되는 지식 양상을 띠게 되는데, 부르디외(Bourdieu, 1980)는 이를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으로 규정한다.

2) 사회적 자본 개념은 사회적 정체성과 상호 호혜적 인식을 통해 포획된 계급적 자원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연결을 통해 확보된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다(권장원, 2004). 또한, 푸트남

와 구조 속에 배태되어 있는 공동 자산으로서의 자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행위자들이 자신의 의도적 행위를 성공시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일종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수혜 대상이 개별 행위자와 더불어 전체 공동체인지, 아니면 특정 계급인지에 따라 상호 차별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 가능하다.

3) 동질성과 이질성에 입각한 사회적 상호작용 매카니즘과 한국의 사회적 자본 특성

사회적 상호작용 작동 매카니즘과 관련하여, 린(Lin, 2002)은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유사한 개별 행위자들 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동질성의 원칙(principle of homophily)³⁾을 제안한다. 생활양식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을 때,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별 행위자들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의 총량과 유형이 비슷할수록 상호작용의 양은 더욱 증가한다. 특히, 동질성 중심의 상호작용은 감정과 정서 공유를 통해 이미 소유한 자원을 유지하고 방어하는데 따른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하고 상이한 자원을 획득하거나 더 많은 자원 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한계를 가진다. 반면, 이질성에 입각한 상호작용은 상이한, 그리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감정의 공유가 어렵다는 점에서 관계 형성에 따른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Lin, 2002). 이런 점에서, 동질적 상호작용의 특성은 유사성에 입각한 계급 재적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보다는 계급 내 조직을 보다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 이질적 상호작용 특성은 개별 행위자의 자발적 신뢰나 규범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며, 이는 인적 자본 내의 지식과 노하우의 폭을 넓혀주는 동시에, 확장된 인적 자본은 다시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다각도의 사회적 자본의 확산 및 확장을 가져옴으로써 공공재적 특성이 강화될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준다. 결국 사회에 내재한 전통적 관계 형성 기반이 이질성에 입각한 상호작용 가능성을 얼마나 포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해당 사회의 사회적 자본 특성은 때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재화로, 때로는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공공재화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사회에 내재한 전통적인 신뢰 요인에 입각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은 동질성과 이질성의 정도를 가늠하는 주요한 잣대로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Putnam, 1993)의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를 공공재로 설정한다는 점에서는 콜먼의 관점과 동일하지만, 호혜성의 규범과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콜먼이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관계 구조의 내부화 효과에 치중한 한편, 푸트남은 특히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외부 효과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김태영, 2001).

3) 동질성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는 McPherson, M., Simth-Lovin., Cook(2001)의 논의를 참고할 것.

3. 기존 연구 논의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신뢰 기반은 지연과 학연에 입각한 연고 요인이다(권장원, 2004, 2009).⁴⁾ 가족 중심의 집단적 가치관⁵⁾에 기반하고 있는 연고 요인은 지역성에 입각한 정치적 당파성을 초래해 온 가장 지배적인 요인이며,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과 함께 연령과 선후배 관계를 기반으로 내집단의 결속과 집단의 목표를 중시하는 위계적 서열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김선업, 1993; 유석춘 외, 2000; 이훈구, 2003; 황종성, 1995). 집단 내부에 속한 행위자들은 특정 연고에의 귀속 여부에 입각한 동질성을 토대로 감성과 정서적 교류에 보다 집중하며, 그 결과, 타 연고에 기반한 외집단과의 상호작용에는 폐쇄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연고에 입각한 관계 구조는 부르디외가 주장한 계급 재화 중심의 사회적 자본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국내 언론 조직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논의는 초창기에는 서구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는 겹임 이사 제도(Interlocking Directorates) 논의를 토대로 이사진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연구는 주로 경제적 자원에 입각한 언론 통제 관점을 견지해왔다(정상윤, 1995). 이후, 한국 언론사 조직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언론 조직이 전통적인 신뢰 요인인 연고를 중심으로 상호 동질적인 특성에 입각한 내집단 중심의 폐쇄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권장원, 2004, 2009; 임영호 외, 2004). 특정 연고에 입각한 내집단 중심의 응집력 강조,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엄격한 분리, 연령과 선후배에 입각한 상호 위계적 질서 구조, 대통령 등 핵심 인사와의 근접성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집단 사고(Group Thinking) 등과 같은 한국 사회의 보편적 조직 문화가 한국의 언론사 조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권장원, 2009).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이사진과 실무진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방송사 조직의 경우 특히, KBS를 중심으로 정치적 지역 연고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반면, 신문사 조직은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기존 정권 하에서 이미 형성된 정치적 지역 연고 특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권장원, 2004, 2009). 또한, 전공보다는 출신대학 중심의 학연이 여전히 정부, 방송, 신문사의 주요한 내집단 형성 요인으로 분석

4) 장원호(2000)는 한국 전쟁으로 인한 공적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붕괴, 박정희 정권기의 급격한 경제 개발과 효율적 통제를 위한 지배추구 집단과의 후견주의적 관계, 그 후 계속되는 압축적 산업화 등으로 한국사회는 공적인 제도나 규율보다 전통적인 연고 네트워크가 유지,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5) 개인의 자율성이나 권리 존중 및 보호 전통이 강한 구미의 개인주의적 사회와는 달리 한국 사회는 집단과 공동체의 질서를 중시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송호근·김우식·이재열 편저, 2004, 365쪽).

된 바 있다(권장원, 2009). 소유 구조의 차이가 정치적 지역 연고에 입각한 언론사 조직 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록 정권 교체에 따라 경미한 변화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수의 특정 대학에 집중된 내집단 중심의 조직 구조가 한국의 언론사 내부에 존재하는 주요한 사회적 네트워크 특징으로 요약 가능하다.⁶⁾

4.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출신지역과 출신대학과 같은 한국의 전통적인 연고 요인과 함께 전문성 요인으로서의 출신전공을 포함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권장원, 2004, 2009)의 변수를 활용함으로써 국내 언론사 조직이 정권 교체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 변화한다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를 통해 볼 때, 국민정부는 국내 언론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 변화를 가져온 주요 전환기(turning point)이다. 국민정부는 비단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언론사 내부 조직 구성에서도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역적 연고에 따른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이기 때문이다(권장원, 2004). 또한, 특정 학연에 귀속하기 위한 사교육 시장이 주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연고 요인에 입각한 권력의 독점 현상이 정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시점이기도 하다. 타 연고와의 연계를 통한 집단 간 교량(bridge) 기능이 부각되고, 자원 확보를 위한 이질적 상호작용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동질성 중심의 상호작용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유발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한편, 기존 연구가 정치 이념적 차원에서 보수에서 진보로, 정치적 지역 기반에 있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전환된 시점에서의 분석이었다고 한다면, 본 연구는 국민정부에서 실용정부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 진보에서 보수로,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회귀한 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실용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에 역점을 두는 시장 중심 경제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내집단 중심의 사회적 자본 구조로

6) 최근 연고 중심의 전통적 공동체 특성에 입각하여 언론 조직 및 조직 행위 특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대화연결망 연구(노성중·민영, 2009), 사회 연결망을 통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 필요성(송현주, 2011), 매체 활용에 따른 지역 정체성과 사회 자본 구성 연구(이영원, 2013), 뉴스 정보원 인용에서의 연결망 분석(박대민, 2014) 등은 공동체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이 정치 및 언론 환경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도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는 다양한 집단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통합은 물론, 이질적 집단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자원의 확장과 경제 활성화 또한 도모하기 어렵다. 정책적 지향점만 놓고 볼 때, 실용정부에서는 기존의 지배적 연고 중심의 사회적 자본 특성이 내집단 중심이 아닌 다양한 집단들과의 상호작용이 강조될 가능성이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언론사 행위 역시 가장 주요한 정보원인 정부 정책과 유기적 연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언론사 내부 조직에서의 변화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연고 요인 차원에서 조직 내부의 변화를 가져온 국민정부에서 실용정부의 시점에서 언론사 내의 연고에 입각한 사회적 네트워크 집중 경향과 지형적 특징을 언론사 유형(신문사/방송사)과 직위(이사진/실무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바 있는 지배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 가능성 및 징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민정부에서 실용정부에 이르기까지 연고 요인(지역, 대학, 전공)에 입각한 언론사 유형(신문사/방송사)과 직위(이사진/실무진)에 따른 밀도상의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국민정부에서 실용정부에 이르기까지 연고 요인에 입각한 언론사 유형과 직위에 따른 분포상의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국민정부에서 실용정부에 이르기까지 언론사 유형과 직위에 따라 연고 요인은 어떠한 지형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제시한 연구문제에 입각하여 국민정부에서 실용정부에 이르기까지 신문사와 방송사 조직에서의 밀도와 분포 분석에 입각한 집중 경향과 위치 분석에 따른 지형상의 특징을 조직 내부와 조직 간 차이를 토대로 분석함으로써 해당 시기 동안에서의 한국 언론사에 내재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변화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의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조직 내, 조직 간 집중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방법 중의 하나인 밀도 분석과 및 분포 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밀도(density)는 가능한 총 관계의 수 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관계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김용학, 2004).⁷⁾ 밀도는 하나의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관계 응집 정도를 분석한 수치를 기반으로 하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점들 간에 존재하는 연결이 그 점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연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다(손동원, 2002). 밀도값이 높을수록 내부는 상호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하지만, 밀도는 특정 신뢰 요인에 입각하여 집단 내부의 연결 정도만 보여줄 뿐 개별 신뢰 요인에 내재한 세부적인 분포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고에 입각한 신뢰 요인을 중심으로 각 정권에서의 신문사 조직과 방송사 내 언론 조직 내부 행위자의 연결 정도와 세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분포 특성을 밀도 및 분포 분석을 토대로 병행, 분석함으로써 조직 구성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이상의 변수 집합들 간의 상관관계들을 연구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방법이며, 범주형 변수를 토대로 위치도(perceptual map)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대응일치 분석은 개별 신뢰 요인들 간의 내적 구조나 패턴을 2차원의 지도로 표현해주는 통계분석 기법이며(원태연·정성원, 2008), 공간 내에 차지하는 위치들을 그래픽으로 보여주는데, 매트릭스 데이터에서 쌍(dyad)을 이루는 개체 간 연결빈도가 높을수록, 해당 개체들은 다차원 공간에 가깝게 나타난다(Wasserman & Faust, 1994). 해당 분석을 토대로 각 정권에서 언론사 유형별 직위 요인이 연고에 입각한 신뢰 요인과 어떠한 위치적 근접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⁸⁾ 이들 분석 방법들을 병행, 활용함으로써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언론사들의 총체적인 연고 네트워크의 연결 정도와 분포 경향, 그리고 위치상의 특성을 언론사 유형(신문사/방송사)과 직위(이사/실무)별로 함께 분석함으로써 정권 교체에 따라 연고에 입각한 신뢰 요인의 특징이 과연 변화하고 있는지, 만약 변화한다면, 변화의 특징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각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국내 언론사 조직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나타났던 내집단 중심의 동질적 상호작용이라는 사회적 자본 특징이 정권 교체에 따라 과연 변화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7) 공식으로 표현하면, density(밀도) = $k/g(g-1)/2$ 이며, 밀도 0은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밀도 1은 모든 점들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0과 1 사이에서 수치가 높을수록 밀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는 집중 경향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손동원, 2002). 참고로, 밀도가 높다는 것은 자원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는 강점이 있지만, 새로운 자원을 추구하고 획득하는 데는 오히려 집단 간의 교량(bridge)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Lin, 2002). 그라노베타(Granovetter, 1973)가 제시한 '약한 연결의 강점(the strong of weak ties)', 버트(Burt, 1992)의 구조적 빈틈(structural hole)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8) 본 연구에서는 밀도 분석은 UCINET 프로그램을, 분포 및 대응일치 분석은 SPSS(ver.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민정부에서 실용정부에 이르기까지 언론사 내부 이사진과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 등의 부장급 인사들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분석 시기 설정에 따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왔던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이다. 즉, 각 정권에서의 대통령 중심의 정치적 연고 기반이 전체 언론 조직 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는 것이다(권장원, 2004, 2009).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대상 정권에서의 정치적 기반을 살펴보면,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는 민주당 중심의 동일한 정치 기반에서 비롯하지만, 실용정부는 새누리당(과거 한나라당) 기반의 정치 기반에서 출발한다. 또한, 대통령의 연고적 측면에서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은 전라남도 광주 출신인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이명박 대통령은 포항 출신이라는 정치적 지역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정치적 연고 요인에 입각해 볼 때,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정권들의 경우 정권과 대통령에 내재한 정치적 연고 기반 측면에서 상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정부와 실용정부는 대통령과 해당 정부의 정치적 지역성 기반이 일치하는 반면, 참여정부는 대통령과 정치적 지역 기반에서 상호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각 정권이 언론에 대해 가지는 정책적 방향의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기존 논의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대언론 지향점은 권언유착 단절, 긴장과 견제, 시스템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실용 정부는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을 과거로 복원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언론 친화, 시장주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권언유착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김영옥·임유진, 2009).⁹⁾ 국민정부 이전까지의 언론 지향점과 실용정부에서의 언론 지향점이 상호 유사한 반면, 이들 정권의 대 언론 지향점이 참여정부와는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언론사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연고 중심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를 출신 지역, 출신 대학, 출신 전공으로 분류하여 각 정권에서의 개별 언론사 내부의 사회적 자본 특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각 정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언론사의 사회적 자본 특성이 해당 정권에서 권력을 장악한 정치 기반과 대통령의 출신 연고, 각 정권에서의 대언론 지향점의 차이 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신 지역은 정치적 지역성과의 연계성을 초래하는 전통적 연고 요인이라는 점에서, 출신 대학은 대

9) 김영옥·임유진(2009)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 대립 지향적이었던 보수지들은 실용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보다 협력 지향적으로 태도 변화를 가져온 반면, 참여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비판과 옹호가 혼재되어 있었던 진보지들은 실용정부와의 관계 담론에서 명백한 대립 구도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표 1. 분석 정권과 분석 대상

정권	국민정부 (N=160)				참여정부 (N=204)				실용정부 (N=274)			
	신문 (N=83)		방송 (N=77)		신문 (N=91)		방송 (N=113)		신문 (N=115)		방송 (N=159)	
직위	이사	실무	이사	실무	이사	실무	이사	실무	이사	실무	이사	실무
빈도수	44	39	33	44	44	47	67	46	56	59	96	63

학 학맥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적 연고 요인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출신 전공은 전문성에 입각한 인적 자본 요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각 정권에서의 사회적 자본 특성을 판단하는데 주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언론사를 신문과 방송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신문의 경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방송은 KBS, MBC, SBS, YTN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해당 언론사 내부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장을 포함한 이사진(〈편집〉 국장 포함)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부장 등 주요 부서 책임자(데스크)를 실무진으로 설정, 이사진과 실무진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개별 언론사의 여론 수렴에 따른 보도 내용의 선택과 구성 등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택 및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사진의 정책적 차원에서, 그리고 데스크는 실무적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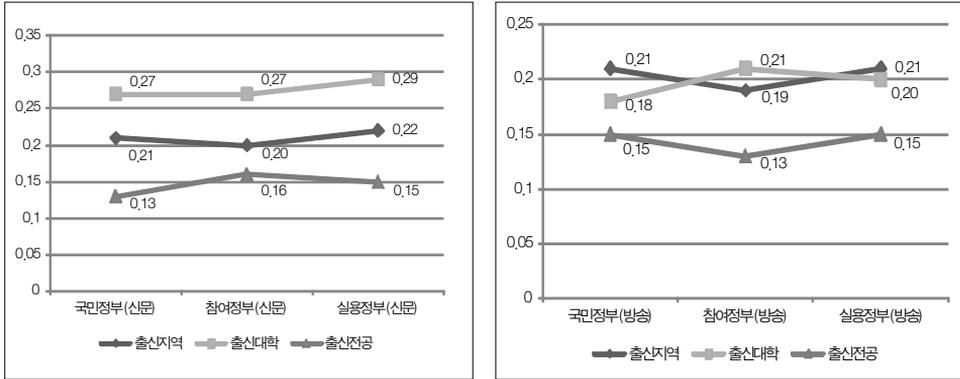
5.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고 요인에 입각하여 밀도 분석과 빈도에 입각한 분포 분석, 그리고 대응 일치 분석 방법을 통해 개별 정권에서의 집중 경향과 특징, 정권 교체 따른 분포 변화 경향, 그리고 위치상의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권별 언론사 유형에 따른 밀도 분석 결과

출신 지역, 출신 대학, 출신 전공 등 분석 변수로 설정한 연고 요인에 입각하여 정권별 밀도를 언론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문사의 경우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전체 정권 공히 출신대학의 밀도값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방송의 경우 국민정부와 실용정부에서는 출신지역이, 참여정부에서는 출신대학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문사 조직의 경우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밀도에 따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방송사는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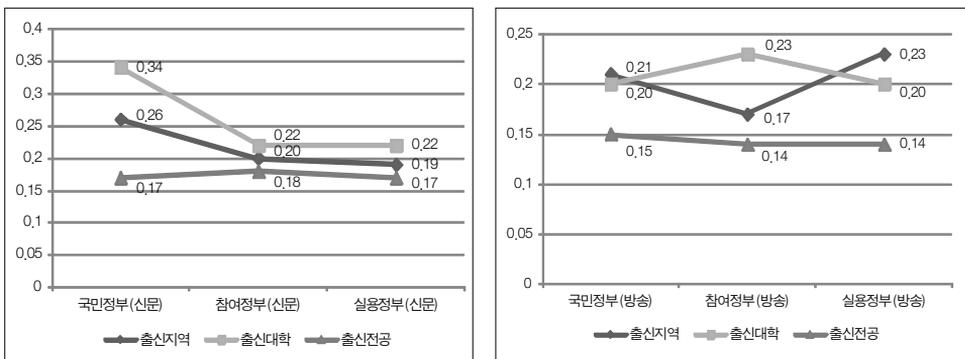
그림 1. 언론사 유형에 따른 각 정부별 밀도 추이(이사진과 실무진 합산 결과)



권 교체에 따른 변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방송사 조직의 경우 정치 환경 변화에 민감한 상호의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 논의(권장원, 2009)가 실용정부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실용정부에서는 특히, 방송사 이사진을 중심으로 출신 지역에 따른 밀도가 출신 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참여정부 시점보다 국민정부 시점과 오히려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정권별 밀도를 언론사 유형별 직위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신문사 이사진의 경우 전반적으로 출신 대학의 밀도값이 출신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참여정부 이후부터는 출신지역과 출신대학의 측면에서 밀도값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방송사 이사진의 경우 참여정부에서는 출신대학이, 국민정부와 실용정부에서는 출신지역에서의 밀도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통령의 출

그림 2. 언론사 유형에 따른 이사진에서의 각 정부별 밀도 추이



신지역과 정치적 기반이 다른 참여정권과는 달리 국민정부 및 실용정부에서 상호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실무진의 경우 이사진과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신문사의 경우 정권 교체에 따라 출신대학에서의 밀도값이 정권 교체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이사진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출신지역의 경우 이전 정권에 비해 실용정부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방송사의 경우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출신지역에서의 밀도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이사진과는 달리 출신지역에 따른 밀도값이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신문사와 방송사 조직 공히 참여정부와 국민 및 실용 정부 간에는 상이한 밀도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언론사 유형에 따른 실무진에서의 각 정부별 밀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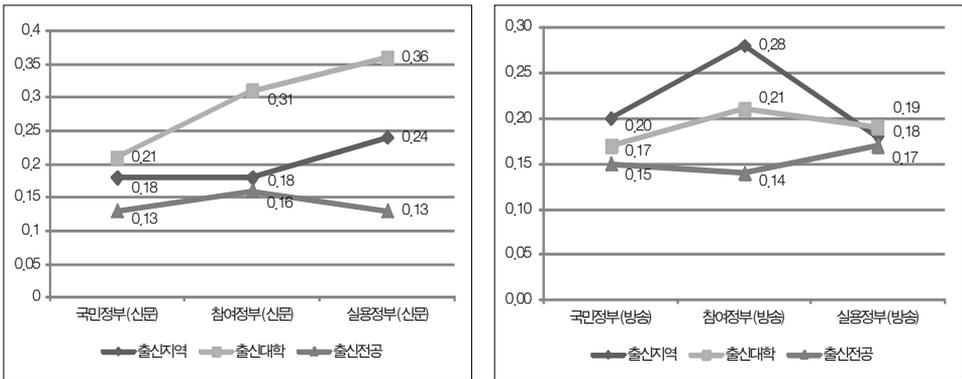


표 2. 정권별, 유형별, 직위별에 입각한 밀도 분석 결과

정권	유형	직위	출신지역 N=638	출신대학 N=638	출신전공 N=638
국민정부	신문계	이사진	0.26(0.44)	0.34(0.47)	0.17(0.37)
		실무진	0.18(0.38)	0.21(0.40)	0.13(0.34)
		전체	0.21(0.41)	0.27(0.44)	0.13(0.34)
지역N:159 대학N:159 전공N:154	방송계	이사진	0.21(0.41)	0.20(0.40)	0.15(0.36)
		실무진	0.20(0.40)	0.17(0.37)	0.15(0.36)
		전체	0.21(0.41)	0.18(0.39)	0.15(0.36)
국민정부 신문방송 분야			0.20(0.40)	0.22(0.42)	0.15(0.35)

정권	유형	직위	출신지역 N=638	출신대학 N=638	출신전공 N=638
참여정부 지역N:200 대학N:201 전공N:188	신문계	이사진	0,20(0,40)	0,22(0,41)	0,18(0,38)
		실무진	0,18(0,39)	0,31(0,46)	0,16(0,37)
		전체	0,20(0,40)	0,27(0,44)	0,16(0,37)
	방송계	이사진	0,17(0,38)	0,23(0,42)	0,14(0,35)
		실무진	0,28(0,45)	0,21(0,40)	0,14(0,35)
		전체	0,19(0,39)	0,21(0,41)	0,13(0,34)
참여정부 신문방송 분야			0,20(0,40)	0,23(0,42)	0,14(0,35)
실용정부 지역N:265 대학N:259 전공N:247	신문계	이사진	0,19(0,40)	0,22(0,41)	0,17(0,37)
		실무진	0,24(0,42)	0,36(0,48)	0,13(0,34)
		전체	0,22(0,41)	0,29(0,45)	0,15(0,36)
	방송계	이사진	0,23(0,42)	0,20(0,40)	0,14(0,35)
		실무진	0,18(0,38)	0,19(0,39)	0,17(0,38)
		전체	0,21(0,40)	0,20(0,40)	0,15(0,36)
실용정부 신문방송 분야			0,21(0,41)	0,23(0,42)	0,15(0,35)
전체정권 신문방송 분야 (N=638) (지역N:624/대학N=619/전공N=589)			0,20(0,40)	0,23(0,42)	0,14(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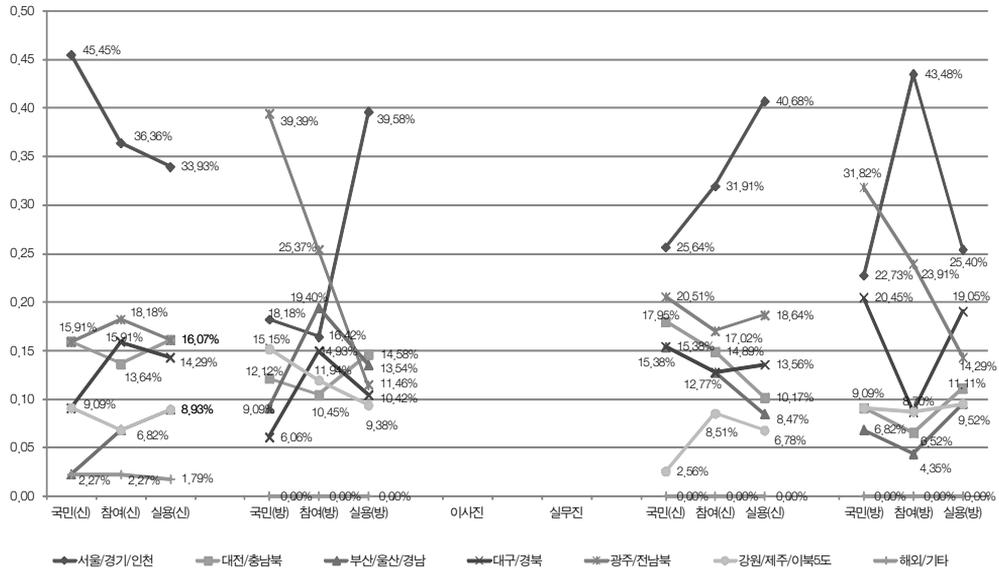
()는 SD(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2) 정권별 언론사 유형에 따른 분포 분석 결과

출신지역에 따라 언론사 유형 및 직위에 따른 분포를 각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우선, 신문사 이사진의 경우 국민정부에서는 서울/경기/인천과 같이 수도권 출신의 인사들이 가장 높게 분포하고 있으나, 정권 교체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방송사 이사진은 국민정부에서는 광주/전남북 출신이, 실용정부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출신이 40% 정도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차 순위에 따른 분포 특징을 살펴본 결과, 참여정부에서의 신문사 이사진은 광주/전남북 출신 인사들이, 방송사 이사진은 광주/전남북 출신과 부산/울산/경남 출신 인사들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권의 정치적 지역 기반과 대통령의 출신 지역에 입각한 지역성 기반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신문사 실무진은 국민정부로부터 정권 교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출신 인사들의 분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차 순위로 광주/전남북, 대전/충남북 출신 인사들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과 정권의 정치적 지역 기반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이사진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신문사의 경우 이사진과 데스크 중심의 실무진 인선에 있어 출신 지역에 따른 안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

그림 4. 출신지역에 따른 이사진과 실무진의 정권별 분포 분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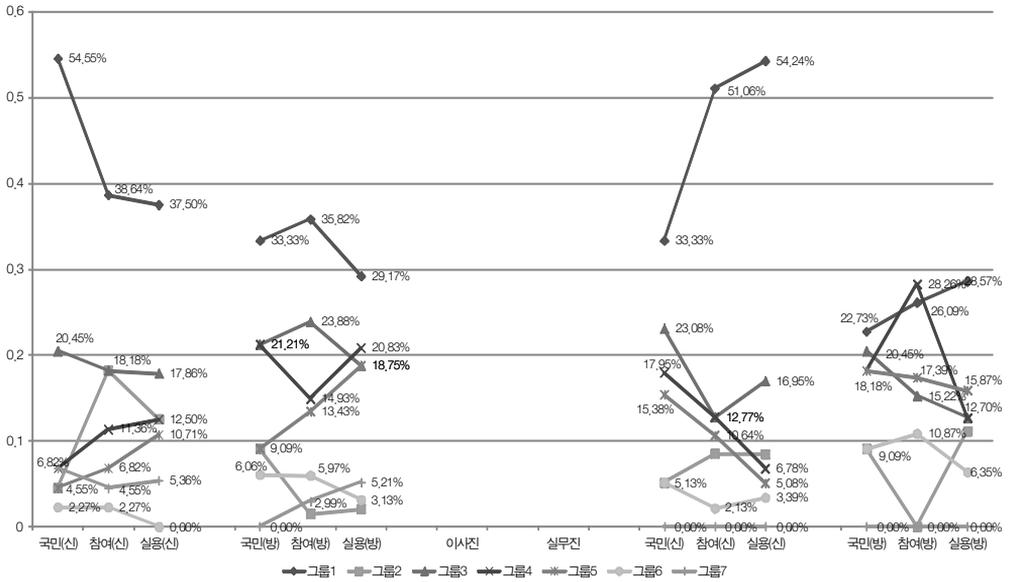
$N = 624, \chi^2 = 103.130, df = 77, p < .05$

이다. 반면, 방송사 실무진의 경우 국민정부에서는 광주/전남북과 서울/경기, 참여정부에서는 서울/경기와 광주/전남북, 실용정부에서는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등 정권 교체에 따라 출신 지역에 따른 분포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문사와는 달리 방송사 조직의 경우 이사진과 실무진 공히 정치적 지역성과 방송사 조직 분포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출신대학에 따라 언론사 유형 및 직위에 따른 분포를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신문사의 경우 이사진과 실무진 공히 <그룹 1>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그룹 1> 출신의 이사진 분포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실무진 분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¹⁰⁾ 이사진과 데스크 중심의 실무진 인선에 있어 출신 지역과 마찬가지로 출신 대학에 따른 안배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분석 결과이다. 또한, 전 정권에서 <그룹 3>이 <그룹 1>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10) 출신 대학에 따른 분석 항목은 그룹 1(서울대), 그룹 2(연세대), 그룹 3(고려대), 그룹 4(서강, 성균관, 외국어대), 그룹 5(서울 소재대), 그룹 6(지역 소재대), 그룹 7(외국 소재대, 고졸,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룹 3까지는 단일 대학이며, 그 이외에는 언론사 소속 비율에 따른 구분과 지역별 구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 유무를 설정하였다.

그림 5. 출신대학에 따른 이사진과 실무진의 정권별 분포 분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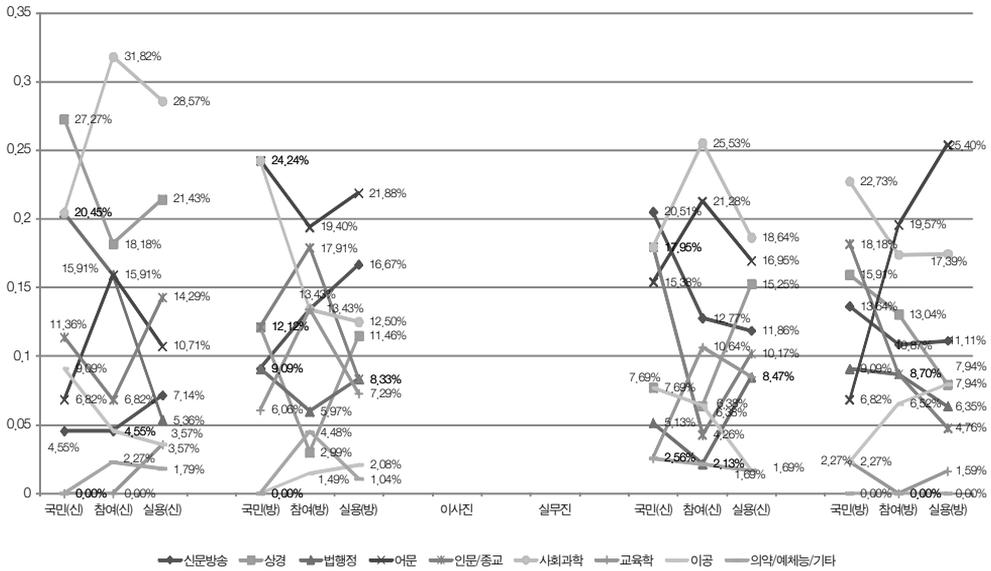


$N = 619, \chi^2 = 127.604, df = 77, p < .01$

<그룹 1> 과 <그룹 3> 의 합산 분포는 최소 55.36%(실용정부)에서 최대 75%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정부에서 신문사 이사진과 실용정부에서의 신문사 실무진의 출신대학에 따른 밀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바로 <그룹 1> 과 <그룹 3> 의 분포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방송사의 경우 이사진과 실무진 공히 <그룹 1> 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신문사 조직과 동일하다. 다만, 이사진과 실무진에 있어 세부 경향의 측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사진은 <그룹 1> 과 <그룹 3> 의 분포 추이가 정권별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그룹 간의 분포의 합이 참여정부의 경우 59.7%로 가장 높으며, 실용정부에서는 47.92%로 분포하고 있어 신문사 조직에 비해 비교적 낮은 분포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실무진의 경우 비록 참여정부에서 그룹 4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단일 대학으로서는 <그룹 1> 이 정권 교체와 더불어 그 분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사진에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던 <그룹 3> 의 경우 정권 교체에 따라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룹 1> 의 분포 추이와는 대조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실용정부에 들어와 특정 학맥을 중심으로 한 집중 경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그룹 1> 과 타 출신대학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출신전공에 따른 이사진과 실무진의 정권별 분포 분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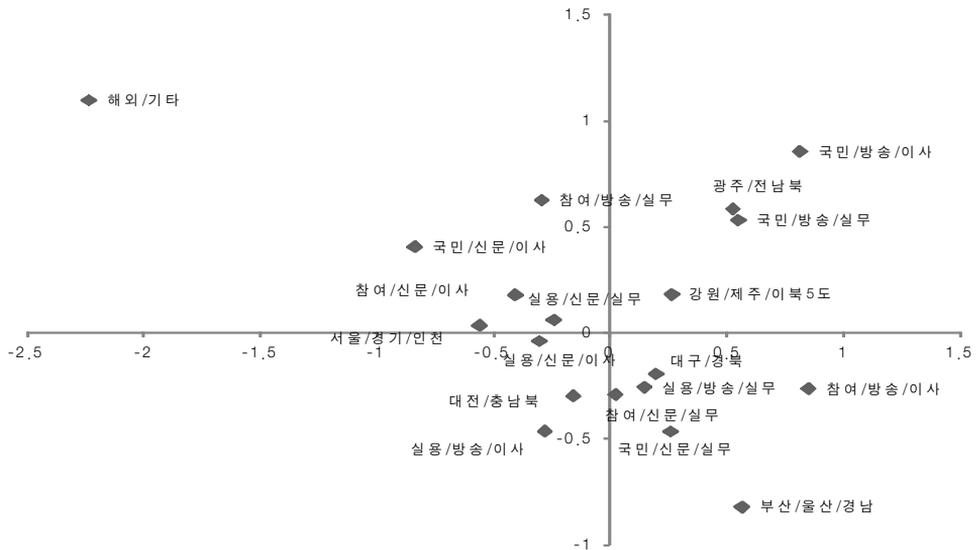
N = 589, $\chi^2 = 148.128$, $df = 99$, $p < .01$

출신전공에 따라 언론사 유형별 직위에 따른 분포를 분석한 결과, 신문사 이사진의 경우 국민정부에서는 사회과학 계열이, 참여 및 실용정부에서는 상경 계열이 가장 높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합은 50% 내외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방송사 이사진은 전 정권에 걸쳐 어문 계열에서 가장 높게 분포하고 있으며, 차 순위로는 국민정부에서는 사회과학, 참여정부에서는 인문/종교, 실용정부에서는 신문방송계열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실무진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신문사의 경우 국민정부에서는 신문방송 계열, 참여 및 실용정부에서는 사회과학 계열과 어문 계열이 가장 높게 분포하고 있으며, 차 순위로는 어문계열의 분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용정부에서 상경계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방송사의 경우 국민정부에서는 사회과학 계열이, 그 이후 정부에서는 어문계열이 가장 높게 분포하고 있어 특히, 참여정부 이후부터는 신문사 실무진과 유사한 추이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문/종교 계열과 상경 계열의 경우 정권 교체와 함께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 또한 특징적이다.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신문사와 방송사 조직 공히 사회과학 계열과 어문 계열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차 순위와의 격차를 통해 볼 때, 특히, 신문사 이사진에서 특정 전공 중심의 집중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전

그림 7. 출신지역에 따른 대응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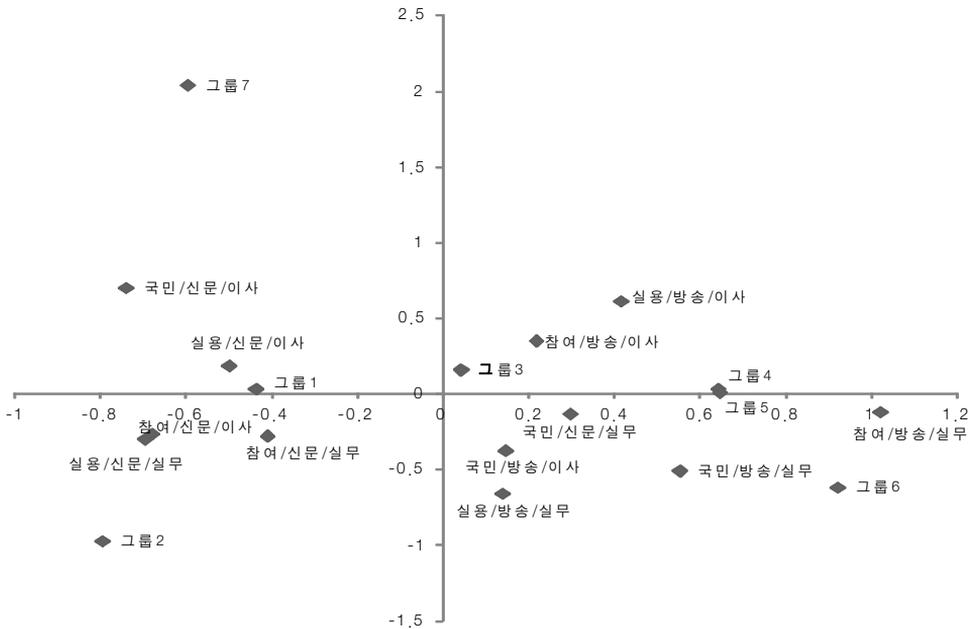
반적으로 다양한 전공 계열에 고르게 포진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에서 다루는 뉴스 콘텐츠가 비록 신문사와 방송사 간의 매체 특징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보다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능력과 글쓰기, 말하기 등 표현 능력 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언론사 직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3) 연구 요인에 입각한 정권별 지형 분석 결과

출신지역에 따른 대응 일치 분석 결과,¹¹⁾ 신문사의 경우 이사진은 정권 교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2사분면)을 중심으로 광주/전남북(1사분면)에서 대구/경북(4사분면), 부산/울산/경남(4사분면)으로 점차 변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무진은 이사진과는 반대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서울/경기/인천, 광주/전남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정권 교체에 따라 이사진과 실무진의 위치가 반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방송사의 경우 이사진은 국민정부에서는 광주/전남북, 참여정부에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실용정부에서는 대전/충남북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실무진은 국민정부에

11) 출신지역에 입각한 대응일치분석 결과, x-y 축에 따른 2차원의 공간에서 전체 데이터 정보량의 69.8%의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8. 출신대학에 따른 대응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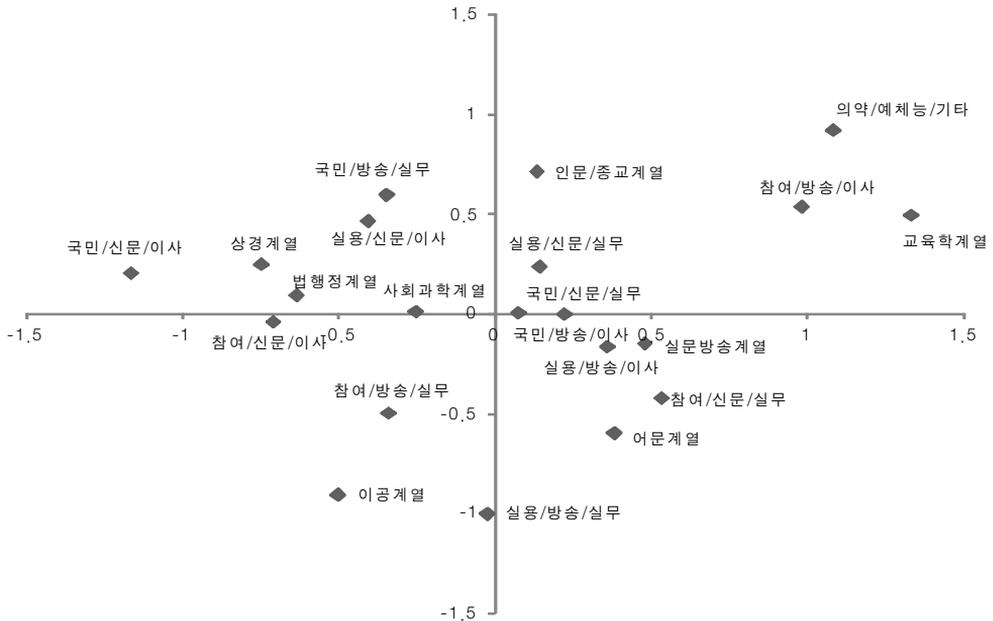


서는 광주/전남북, 참여정부에서는 서울/경기/인천과 광주/전남북, 실용정부에서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 근접하는 위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방송사 조직의 경우 국민정부에서는 이사진과 실무진 공히 광주/전남북 중심의 지형적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에 들어오면서 이사진은 대구/경북과 서울/경기/인천 위치로, 실무진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위치로 점진적인 이동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문사의 경우 출신지역에 따른 안배 현상이, 방송사 조직의 경우 정치적 지역성 기반에 입각한 위치 변화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출신대학에 따른 대응 일치 분석 결과,¹²⁾ 신문사의 경우 이사진은 <그룹 1>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경향이 강하며, 실무진의 경우 국민정부에서는 <그룹 3>, <그룹 4>, <그룹 5>의 인접 위치에, 참여 및 실용정부에서는 <그룹 1>의 인접 위치에 포진하고 있다. 한편, 방송사 이사진의 경우 국민정부에서는 <그룹 3>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나, 정권 교체와 더불어 <그룹 4>, <그룹 5>(1사분면) 방향으로 위치가 점차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

12) 출신대학에 따른 대응일치 분석 결과 x-y 축에 따른 2차원의 공간에서 전체 데이터 정보량의 74.1%의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출신전공에 따른 대응 분석 결과



다. 반면, 방송사 실무진의 경우 국민과 참여정부에서는 <그룹 4>, <그룹 5>, <그룹 6>과와 위치적 근접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용정부에서는 <그룹 3>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지형적 특성을 놓고 보면, 신문사의 경우- 국민정부에서의 신문사 실무진을 제외하고는- 이사진, 실무진 공히 <그룹 1>에 근접한 위치적 특성을 보여주는 반면, 방송사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 정권에서의 이사진과 실용정부에서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그룹 3>과 위치적으로 인접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출신전공에 따른 대응 일치 분석 결과,¹³⁾ 신문사의 경우 이사진은 상경계, 법정계, 사회과학계열과 인접한 위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실무진은 국민- 실용정부에서의 경우 사회과학계열, 인문/종교계열, 신문방송학계열에, 참여정부에서 어문계열, 신문방송계열에 인접하고 있다. 한편, 방송사의 경우 이사진은 국민-실용정부에서 사회과학계열, 신문방송계열, 어문 계열과, 참여정부는 의약/예체능, 교육학, 인문/종교 계열과 근접한

13) 출신전공에 따른 대응일치 분석 결과 x-y 축에 따른 2차원의 공간에서 전체 데이터 정보량의 68.8%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실무진의 경우 국민정부에서는 상경 및 법정 계열, 참여정부에서는 사회과학계열 및 이공계열과 근접해 있으며, 실용정부에서는 이공 및 어문계열과 근접한 경향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지형상의 경향만 놓고 보면, 신문사와 방송사, 이사진과 실무진 공히 사회과학계열이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각 언론사 유형에서 이사진과 실무진 전반에 걸쳐 전공 계열의 위치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6. 분석 결과에 대한 함의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국민정부에서 실용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 교체에 따라 신문사 조직과 방송사 조직을 이사진과 주요 부서의 책임자인 데스크를 실무진으로 구분, 조직 내, 조직 간의 네트워크 특성을 밀도와 분포 분석, 대응 일치 분석 등을 통해 조망함으로써 한국의 언론 환경에서 형성되어 온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그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첫 번째 연구 문제인 밀도상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신문사 조직의 경우 참여정부에서는 출신대학이, 국민정부와 실용정부에서는 출신지역에서 가장 높은 밀도값을 보이고 있다. 직위별로 분석한 결과, 이사진의 경우 신문사 전체와 참여정부 방송사 조직을 중심으로 출신대학에 따른 밀도값이, 국민정부와 실용정부 방송사에서는 출신지역에 따른 밀도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실무진의 경우 신문사에서는 출신대학에 따른 밀도값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와 함께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방송사에서는 출신지역에 따른 밀도값이 특히,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문사의 경우 출신대학에 따른 밀도값은 타 신뢰요인에 비해 높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 이사진은 하락하고, 실무진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방송사의 경우 특히,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이사진은 출신대학에서, 실무진은 출신지역에서 가장 높은 밀도값을 보이고 있어 이사진과 실무진 간에는 상반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신문사의 경우 사적 소유라는 점에서 내부 조직 인선 및 구성에 있어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보다는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인사권자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 정책적 이슈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 확보와 광고를 비롯한 다각도의 자원 확보 차원에서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신문의 경우 출신대학에 입각한 학맥을 토대로 정보 수집과 해독, 그리고 보도에 따른 전문성 확보에, 방송의 경우 정치적 지역성에 입각한 연계와 상호작용에 보다 강점을 지닌 조직 구조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분포상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신문사 조직에서는 서울, 경기 출신 인사들이, 그 다음으로는 광주, 전남 출신 인사들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방송사 조직은 국민정부와 실용정부에서 해당 정권에 내재한 정치적 지역 기반에 따른 분포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정치 환경과의 연결 가능성에 입각한 네트워크 특성이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편, 출신 대학에 따른 분석 결과, 신문사와 방송사 공히 <그룹 1> (서울대)의 분포가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는 <그룹 3> (고려대)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출신대학에 따른 밀도값의 차이가 이들 <그룹 1> 과 <그룹 3> 의 분포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방송사 실무진의 경우 정권 교체에 따라 <그룹 1> 의 분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고에 입각한 집중 경향이 단순히 언론사 이사진의 문제의 집중 경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 구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출신 전공에 따른 분포 분석 결과, 신문사의 경우 방송에 비해 상경계열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문과 방송 분야 공히 사회과학 계열과 어문 계열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출신 전공의 경우 출신지역과 출신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값과 분포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 도입과 함께 기자들의 지적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반면, 개별 역량 평가에 따른 방안 부재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작용하게 되어 전공의 다양성과 특정 학벌에 입각한 집중 경향이 보다 강화되는 추이로 나타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세 번째 연구 문제인 대응 일치 분석 방법에 입각하여 지형상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신문사의 경우 위치 변화의 폭이 크지 않으면서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이동하는 반면, 방송의 경우 정권의 지역 기반에 따른 인접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 신문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많이 받는 지배 구조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출신 대학에 따른 지형적 특성은 신문사의 경우 국민정부에서의 신문사 실무진이 그룹 3(고려대)에 근접한 위치적 특성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룹 1> (서울대)에 근접하는 경향적 특징을 보여주는 반면, 방송사는 참여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대학 출신과의 인접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룹 3> (고려대)에 근접하는 경향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신문사의 경우 이사진과 실무진 각각 법, 상경, 사회과학계열 등 특정 전공계열에 따른 위치적 근접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방송사의 경우 정권 교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양한 전공과의 위치적 근접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시점에서 연고 요인의 집중 경향과 지형상의 특징이 과연 변화의 추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언론 환경이 이질성에 입각한 사회적 자본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변화 경향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정권의 경우,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정부에서와는 달리 변화 경향을 엿볼 수 있었지만, 실용정부에서는 참여정부 이전 정권에서의 네트워크 특성과 유사한 형태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어 특정 연고 요인에 입각한 동질적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연고의 집중 및 지형상의 특징이 비단 이사진뿐만 아니라 실무진의 최고 책임자인 데스크에서도 함께 연계하여 적용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실용정부에서는 연고 요인이 언론사 환경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관계 형성 경로이며, 신문사, 방송사 공히 특정 대학 출신이 실무 책임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분석되었다.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증가한 반면, 입사는 물론 인사사고에서 언론인으로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 사회 전반에 걸쳐 특정 학맥 중심의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됨으로 인한 정보 수집 역량의 차이 등의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정용준(2011)의 연구 결과에 입각해 볼 때, 특히, 방송의 경우 지배구조에 입각한 실용정부의 방송 통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¹⁴⁾

한국 사회는 최근, 다양한 자원 조직이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고 조직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한준, 2004).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엿보이는데, 신문사의 경우 참여정부에서의 실무진을 제외하고는 출신대학에 따른 집중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방송사는 기존 연구(권장원, 2004, 2009)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지역성에 입각한 연고 요인이 조직 내부의 집중 경향과 위치적 근접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실무진을 중심으로 특정 학맥의 분포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연고의 동원은 조직의 분열을 개인적 신뢰와 과거의 동지애로 막아낼 수 있으며, 조직 내부의 사사로운 갈등을 초월하여 각종 단체 내부의 집착제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송호근, 1998; 윤민재, 2004). 하지만, 연고 요인에 의한 집중 경향이 강화될수록 조직 내부 차원에서는 고향 선후배, 대학 선후배 관계에 기반한 연령 중심의 연공 서열형 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며(신준우, 1989), 특정 연고를 기반으로 한 사적 신뢰가 전체 사회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언론을 포함하여 특정 연고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내집단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언론이 정치 환경은 물론 사회 전반에 대한 감시권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¹⁵⁾ 특히, 언론인의 성별, 인종, 학력, 언

14) 실용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KBS, YTN 사장 임명 등 방송 분야에 소위 'MB의 사람들'을 가장 많이 낙하산 인사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였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정용준, 2011).

론 경력 등이 기자가 생산하는 내용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원룡 역, 1997, 141~147쪽; 한국언론재단 편, 2003, 76~77쪽; Shoemaker & Reese, 1996; 권장원, 2004 재인용)는 기존 연구를 통해 볼 때, 언론사 내부의 특정 연고 집중 경향은 특정 연고에 우호적인 여론 분위기를 형성, 연고에 내재한 사회적 자본 특성의 우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별 집단의 이익을 더욱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전체 사회의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적 자본 개발에 대한 투자보다 특정 연고로 귀속하기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사회적 네트워크 방법 중 밀도와 위치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중심성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분량의 제한이라는 측면과 함께, 세 개 정권을 기반으로 방대한 시점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동일한 연고에의 귀속이 반드시 상호 연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의 엄밀성의 차원에서 볼 때, 출신지 구분이 갈수록 모호해지는 현실의 문제를 함께 다루지 못한 점, 비단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 부처 장관들의 연고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 또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장원 (2002).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연고 속성 변화 경향에 대한 연구. 『언론과 사회』, 10권 2호, 7~33쪽.
- 권장원 (2004). 한국 언론사의 관계 권력 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164~188쪽.
- 권장원 (2009). 정부 조직과 언론 조직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 구조 분석. 『한국언론학보』, 53권 5호, 32~54쪽.
- 김선업 (1992). 한국사회 연출망의 구조적 특성. 『한국사회학』, 26집, 1~31쪽.
- 김영욱·임유진 (2009). 언론의 정부-언론 관계와 언론 정책에 대한 담론 변화 분석: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보도 이데올로기 차원 비교 평가. 『한국언론학보』, 53권 4호, 94~115쪽.
- 김용학 (1996). 『사회구조와 행위』. 서울: 사회비평사.

15) 최진호·한동섭(2012)에 따르면, 한국 언론에서 나타나는 정파성의 특징은 '정당 정파성'이며, 언론의 정파성은 실제 보도를 통해 편향성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소통의 위기에 직면하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김용학 (2004).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 김태영 (2001). 자발적 조직과 사회적 자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과학연구소 엮음. 『도시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산업』. 서울: 삼우사.
- 노성중·민영 (2009). ‘숙의’와 ‘참여’의 공존: 대화의 숙의수준에 따른 정치적 이견의 경험과 정치 참여의 관계 탐색. 『한국언론학보』, 53권 3호, 173~197쪽.
- 박대민 (2014). 뉴스 정보원 인용에서의 폭발성과 언론의 편향성.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1호, 295~323쪽.
- 박승관·장경섭 (2000). 한국의 정치변동과 언론권력: 국가-언론 관계 모형 변화. 『한국방송학보』, 14권 3호, 81~113쪽.
- 손동원 (2002). 『사회 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 송현주 (2011). 사회 연결망을 통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필요성과 전망. 『커뮤니케이션 이론』, 7권 2호, 75~103쪽.
- 송호근 (1998). 신사회운동 참여자 분석: 누가, 왜, 어떻게 참여하는가? 『한국사회과학』, 20권 3호, 45~74쪽.
- 송호근·김우식·이재열 편저 (2004). 『한국의 사회적 연결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신준우 (1989). 『한국 방송 노사간의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석춘·정미혜·김태은 저 (2000). 동아시아 연고주의와 세계화. 『전통과 현대』, 가을호.
- 윤민재 (2004). 한국사회의 진보/보수 사회운동단체 실무진의 정치의식, 태도와 네트워크. 『사회과학연구』, 12권 2호, 가을호, 218~254쪽.
- 원태연·정성원 저 (2008). 『(한글 SPSS 12K) 통계조사분석』. 서울: 한나래 출판사.
- 이병혁 (2001).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연결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과학연구소 엮음. 『도시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산업』. 서울: 삼우사.
- 이영원 (2013). 지역 정체성과 사회자본 구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중매체와 SNS 이용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6호, 636~662쪽.
- 이훈구 (2003). 『연고주의』. 서울: 법문사.
- 임영호·김은미·박소라 (2004). 한국 일간지 언론인의 커리어(career) 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3호, 61~89쪽.
- 장용호·김학수·정상윤 (1994). 한국 언론기업의 소유 구조 및 이사진 형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성곡논집』, 25집.
- 장원호 (2000). 지방정치 민주화와 사회적 자본.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자료집』, 35~53쪽.
- 정상윤 (1995). 『신문사의 네트워킹과 통제에 관한 연구: 지방신문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용준 (2011 여름호). 한국방송정책의 가치와 이념. 『방송통신연구』, 75호, 9~27쪽.
- 장하용 (2006). 한국 언론인의 사회적 자본으로 외부 연결망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0권 5호, 243~286쪽.

- 최진호·한동섭 (2012). 언론의 정파성과 권력 개입. 『언론과학연구』, 12권 2호, 534~571쪽.
- 황중성 (1995). 한국 정치엘리트의 구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0집 2호, 141~163쪽.
- 한국언론재단 (2003). 『저널리즘 평론: 오보』. 서울: 한국언론재단.
- 한준 (2004). 동아시아에서의 연고와 사회자본=중국 현지 한국, 일본, 대만 기업 관리자의 인식비교. 『동아시아: 비교와 전망』. 2, 5~22쪽.
- Borgatti, S. P, Everett, M. G., & Freeman, L. C. (2002). *UCINET for Windows*. Harvard, MA: Analytic Technologies.
- Bourdieu, P. (1980). Le Capital Social: Notes Provisoires.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3, 2~3.
- Bourdieu, P. (1983/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s.),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pp.241~258). CT: Greenwood Press.
- Burt, R. S. (1992). *Structural Holes :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 Harvard Univ. Press.
- Coase, R. H.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3*.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 94, 95~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Dreier. (1983). The position of the press in U.S. Power structure.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book*, 4.
- Entman, R. M. (1989). *Democracy without Citizens : Media and the Decay of American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ohnson, H. G. (1960). The Political Economy of Opulenc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6, 552~564.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 Knoke, D. (1990). *Political networks : The structural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 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Pherson, M., Smith-Lovin, L., & Cook, J. M. (2001). Births of a feather: Homophily in social network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415~445.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ultz, T. W.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LI(1, March). pp. 1~17.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nd ed.)*. 김원룡 역 (1997). 『매스미디어 사회학』. 서울 : 나남출판.
- Wasserman, S., & Faust, F.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N.Y.: Cambridge Univ. Press.

A Study on the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in Press Organizations of Korea

Jang-Won Kwo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s & Adverti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implications, and problems of Social Network of Press Organizations from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 Korea. For analyzing these issues,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traits of social network structure based on the density analysis, distribution character analysis and correspondence analysis in each and among regime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utilizes human relationship data which related to personal network aspects (place of birth, affiliated college) and expertise aspects (types of major field), and which data has been gathered from the biographical web-site of Press Organizations in Kore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mbership format of each Press Organizations depends on the connection with political environment directly and indirectly. Especially, the network traits of Broadcasting Press Organizations stands out a place of birth aspect. This findings indicate that the broadcasting policy reality that the path of decision making is connected with the political environment is more effective.

KEYWORDS Social Network, Social Capital, homophily, Density, Personal Network